

201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도덕 · 윤리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8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서양 헬레니즘 시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이 사상가의 입장에서 추구해야 할 욕구의 유형과 공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작성 방법>에 따라 각각 서술하십시오. [4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쾌락의 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숙고를 통해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인생의 유한함도 우주의 무한함도 우리에게 똑같은 쾌락을 의미한다. ... (중략) ... 욕구들 가운데 어떤 것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며, 어떤 것은 자연적이거나 필연적이지 않다. 그리고 어떤 것은 자연적이지도 필연적이지도 않으며 단순히 공허한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 (중략) ... 죽음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습관을 들여라. 왜냐하면 모든 선과 악은 감각 능력을 전제하는데, 죽음은 바로 ( )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아무 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덧없는 삶을 비로소 유쾌하게 만들어 준다. 현자는 삶을 거부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상태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 <작성 방법>
- 밑줄 친 욕구의 유형에서 쾌락을 가져오는 욕구를 서술할 것.
  - 공적인 삶 가운데 특히 정치적 삶에 대한 태도를 서술할 것.

2. 다음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갑과 을의 대화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과 ㉡을 <작성 방법>에 따라 각각 서술하십시오. [4점]

갑: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에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인권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내부 문제만으로 취급될 수 없는 보편적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개별 국가들이 오히려 주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2000년대 들어서 국제 사회가 유엔 인권 레짐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을: 외부 세계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북한이 현실적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외부의 인권 개선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념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 ) 원칙에 기초하고 있어. 또한 북한은 체제 안보의 차원에서 ㉠ 인권과 국가 주권 사이의 우선 순위에 대한 기본 입장을 토대로 ㉡ 외부의 인권 개선 요구나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 <작성 방법>
- 인권과 국가 주권 사이의 우선 순위에 대한 북한의 기본 입장을 서술할 것.
  - 외부의 인권 개선 요구나 압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 내용을 ㉠의 기본 입장을 토대로 서술할 것.

3. 다음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을 활용하여, 밑줄 친 ㉡을 설명하시오. [4점]

○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을 이성을 지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반면에, 공동체주의자들은 ( ) 존재로 파악한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 존재의 사회적 의존성을 인정한다면, 개인적 자유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사회의 ㉠ 공동선을 유지할 우리의 의무도 중요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권리의 정치’는 폐기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동선의 정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자유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냐가 아니라 개인들이 자유롭게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가라고 할지라도 개인들에게 특정한 형태의 삶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도가 개인들의 본질적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 국가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은 자유주의자들과 다르다.

4. 다음 (가), (나)는 사회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과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나)에서 중요시하는 자유를 설명하시오. [4점]

(가)	한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박탈이다. 자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검토해 보면, 첫 번째는 ( ㉠ ) 의미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스스로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방임하여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과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는 ( ㉡ ) 의미라 지칭하고자 하는데,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 말고 저것을 하게끔, 이런 사람 말고 저런 사람이 되게끔 결정할 수 있는 통제의 근원이 누구 또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과 관련된 것이다.
(나)	평민과 귀족 간의 내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로마를 자유롭게 만든 일차적 원인을 비난하고, 그러한 내분이 초래한 좋은 결과보다는 그것들로부터 유래하는 분란과 소동만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모든 공화국에는 두 개의 대립된 파벌이 있다는 점과 로마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정된 모든 법률은 그들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공화국에서 자유를 회구하는 평민의 열망이 자유에 해로운 경우란 거의 없다. 그 열망은 억압으로부터 또는 억압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5. 다음 (가)는 동양 고전의 일부이고, (나)는 한국 유학 사상가의 진술이다. (가)의 ‘이것’이 무엇인지 쓰고, ‘이것’에 대한 (나) 사상가의 주장을 서술하시오. [4점]

(가)	○ ‘이것’으로부터 명(明)에 이르는 것을 성인(聖人)의 타고난 바라고 하며, 명으로부터 ‘이것’에 이르는 것을 현인(賢人)의 배움이라고 한다. ○ ‘이것’은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물을 완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본성이 지닌 덕(德)으로서, 내외(內外)를 합일시키는 도(道)이다.
(나)	이통(理通)이란 천하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理)를 갖는 것이요, 기국(氣局)이란 천지만물이 각각 기(氣)를 달리 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일분수(理一分殊)란, 이(理)는 본래 하나이지만 기(氣)의 고르지 못함으로 인해 각각의 이(理)가 됨을 의미한다. 이것이 분수(分殊)가 있게 되는 까닭이니, 이(理)는 본래 하나가 아닌 것이 아니다.

6. 다음 (가), (나)는 동양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가) 사상가가 강조한 ‘이것’의 기능을 3가지 서술하고, ‘이것’에 대한 (나) 사상가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5점]

(가)	‘이것’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구가 있는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충족시키려 한다. 욕구를 추구하면서 기준이 없으면 서로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우면 사회가 궁핍해진다. 선왕(先王)은 이런 혼란을 싫어해 ‘이것’을 제정하였다. ... (중략) ... ‘이것’을 따르는 자는 다스릴 수 있지만 따르지 않는 자는 다스릴 수 없고, ‘이것’을 따르는 자는 안정되지만 따르지 않는 자는 위태로우며, ‘이것’을 따르는 자는 존속하지만 따르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나)	배움을 구하면[爲學] 배워야 할 것이 날로 늘어나고, 도를 행하면[爲道] 날로 덜어진다. 덜고 덜어서 무위(無爲)에 이르게 되고 비록 무위일지라도 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無不爲]. ... (중략) ... 성인은 백성들 위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기를 낮추어 말하며, 백성들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백성들을 돌본 뒤에 자기 자신을 돌본다. 이 때문에 성인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추대되어도 백성들은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며,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도 백성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천하 사람들은 성인을 즐겁게 추대하며 싫어하지 않는다.

7. 다음은 서양 사회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이 사상가가 ㉠을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3가지 서술하시오. [5점]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 남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자가 오히려 더 심한 노예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 (중략) ... 주권자는 정부를 인민 전체 또는 최대 다수의 인민에게 위임함으로써 단순한 개인으로서의 시민의 수보다 행정관인 시민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체제를 ( ㉠ ) (이)라고 부른다. ... (중략) ...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그 법률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는 제도가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어느 면에서 ( ㉠ )의 결함이 된다. 왜냐하면 마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통치자와 주권자를 완전히 동일한 인격으로 보는, 말하자면 정부 없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 ... (중략) ...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공공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들이 언제나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8. 다음은 도덕교육 관련 이론들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가), (나) 이론의 공통점을 2가지 쓰고, (다) 이론의 관점에서 (가), (나) 이론을 각각 비판하시오. [10점]

(가)	끊임없이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옹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가치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어떤 근거로부터 파생된 절대적인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를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는 가치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가치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선택, 존중, 행위로 구성된다.
(나)	도덕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더욱 복잡한 방법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적 추론 유형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단계 높은 도덕적 추론 유형을 접함으로써, 학생들은 높은 단계로 이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지적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다)	기존의 도덕교육이 선을 알게 하는 데 치중해 왔다면, 우리의 도덕교육은 지속적인 도덕적 습관과 덕성의 계발을 통해 선을 알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인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덕교육은 존중, 책임, 정의, 타인 배려와 같은 핵심 가치들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행동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지역사회·학부모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 <작성 방법>—————
- (가), (나)의 공통점은 ‘도덕교육의 형식과 내용’ 및 ‘학습자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제시할 것.
  - ‘가치의 본질’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다)의 관점을 제시할 것.
  - (가)에 대해서는 ‘가치의 본질’ 측면에서 비판할 것.
  - (나)에 대해서는 ‘도덕적 행동’ 측면에서 비판할 것.

**<수고하셨습니다.>**